



희심자작교

경남 남해 하면 먼저 금산(錦山)이 떠오른다. 남해대교를 건너 19번 도로를 타고 미조항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해발 701m의 금산이 있고, 거기서 계속 같은 길로 오른쪽 해안을 끼고 돌면 상주해수욕장 조금 못 미쳐서 언덕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작은 포구가 들어앉아 있다. 벽련이라는 바닷가 마을이다. 벽련 포구로 내려서는 길 입구에 조그맣게 서포 김만중 선생 유배지 노도 입구란 팻말이 붙어 있다.

김만중, ‘한’을 싣고 남해로 유배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은 조선 숙종 때 문관으로 인조 15년(1637년)에 태어나서 숙종 18년(1692년)에 세상을 떠났다. 유복자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일까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종 6년에 정시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공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대사헌 등을 지냈다. 성품이 강직하여 직언을 잘해 강원도 금성, 평안도 선천, 경상남도 남해 등으로 세 번씩이나 유배를 당하였다. 그리고 남해 노도에서 3년여의 유배 생활 끝에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벽련 포구에서 바라보면 왼쪽에 치우쳐 삿갓처럼 떠 있는 섬이 노도이다. 원래 이 섬

은 그 모양대로 삿갓섬이라 불렸는데, 임진왜란 당시 이 섬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 배를 짓는 노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노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서포의 유배 길은 당시 한양에서 이곳 남해까지 천리 길이다. 바닷길은 육지와 달리 서 거리로 썰 수 없는 길이다. 언제 살아서 다시 바다를 건널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해서 마음이 천근인, 그야말로 ‘한’을 돌덩이처럼 배에 싣고 가는 유배길인 것이다. 남해시 상주면 양어리에 자리한 노도는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또한 이곳은 볼락, 농어, 감성돔 등이 잘 잡히는 곳으로 낚시터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김만중은 숙종 15년(1689년)에 이곳 노도로 와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냥 놀고먹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격리시켜 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사력을 다하여 집필 활동에 들어갔다. 그가 이곳에서 쓴 소설로 알려진 것은 「사씨남정기」란 국문 소설이다. 그의 다른 작품 중 「구운몽」이란 소설이 있다. 이 작품 또한 유배지에서 쓴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가 먼저 유배를 당했던 선천에서 쓴 것인지 나중에 다시 유배를 당한 남해 노도에서 쓴 것인지 확실한 증거는 없다.

「구운몽」은 효자로 소문난 김만중이 어머

니를 생각하면서 하룻밤 만에 쓴 것이라고 한다. 소설 내용은 중국을 배경으로 주인공 성진은 육관대사의 수제자로 용궁에 다녀오던 중 8선녀를 만나 석교 위에서 희롱한 죄로 인간 세계에 내쫓긴다. 성진은 중국 수주 현에 사는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고, 8선녀는 진채봉, 계섬월, 적경홍, 정소저, 춘운, 난양공주, 심요연, 백룡파가 된다. 양소유는 그로부터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다시 천자의 부마와 원수가 되고 대승상이 되기까지 파란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이 8선녀들을 모두 차례로 만나 2처 6첩을 거느리게 되고, 일가 화락한 가운데 부귀공명을 누리며 잘 살다가, 만년에 인생무상을 느끼고 불문에 귀의하여 모든 전죄를 뉘우치고 극락세계로 간다는 줄거리이다. 인간의 부귀·영화·공명은 모두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제로 유교적인 윤리관과 도교 사상이 교묘히 융합되어 있는 특이한 소설로 국문학사상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성진이 팔선녀를 희롱했던’ 돌다리

줄거리에서도 보았듯이 성진과 팔선녀의 이야기가 돌다리를 무대로 펼쳐진다. 이 돌다리는 경남 남해군 남면 석교리에 있다. 석교리는 석교·월포·숙호 3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석교는 신라 제31대 신문왕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 남면 우형에 현령이 주재할 당시 박장군이탄 역사가 출생하여 돌다리 길이 3m, 넓이 80cm, 두께 30cm, 무게 약 6톤의 가교를 놓으므로 석교라 불렀다고 한다. 지

금은 새 교량 가설로 철거되어 석교 마을 앞 유공자 공적비 부근에 안치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993년의 태풍 매미로 인해 공적비들이 다 무너졌으나 아직까지도 보수가 되어 있지 않다.

월포는 마을의 형태가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예전에는 순월개라고 불리어오다 조선시대 말부터 지금의 월포로 개칭되었다.

숙호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함안 조씨가 이주하여 살면서 우연히 마을에 들어온 범을 잡아서 뒷산에 있는 굴에 키우니 이 고장에서는 처음 보는 범이라 구경꾼이 많이 모여드는 바람에 조씨 집안의 살림이 망했다고 한다. 그때 고을 원님도 범 구경을 왔다고 하며 부락의 명칭은 마을의 지형이 범이 자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숙호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창원의 희심자작교

창원시는 한반도의 동남단 경남의 중부 남단에 위치하여 마산항과 진해시, 밀양시, 김해시, 함안군과 인접해 있는 도시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지형으로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한정되었던 관계로 지역민의 성격, 민속 등 사회 문화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의 중부 남해안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이며 상업 도시인 부산시와 중서부 경남 및 호남 지방을 연결시켜 주는 내륙 교통의 요충지이다. 그리고 마산시와 인접한 관계로 상업·교육·의료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종전에는 마산시에 의존해 왔으나, 경남도청의 창원 이전과 함께 중심 기능이 꾸준히 강화되어 현재는 일부 기능을 마산에 제공하고 있다.

창원에는 미금산이 있다. 높이 280m인 미금산은 말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산이 그리 높지 않아 오밀조밀함을 만끽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자연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미금산 온천이 있다. 지역 이름을 따 북면 온천이라고도 한다.

이 온천은 「동국여지승람」에 온천수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1927년 당시 마산 독립병원장으로 있던 일본인 도쿠나가 씨가 간이 욕탕 시설을 하여 요양 장소로 이용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지역 주민인 손진일 씨가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수온 55℃ 이상을 유지하는 약알카리성 온천으로 온천수의 주성분은 나트륨, 리튬, 망간, 황산이온 등 20여 종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관절염, 부인병, 신경통, 잠수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나무가 무성한 창원시 북면에는 희심자작교(喜心自作橋)라는 다리가 하나 있다. 다리 주위에도 감나무들이 감싸고 있다. 이 다리는 대지주인 경릉 침봉 이정하라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의 불편함을 알고 개천에 놓은 다리이며 길이 360cm, 폭 120cm, 두께 30cm 정도이다. 이 다리는 창원에서 함안에 장이 서면 장을 보기 위해 다니는 길이기도 하였으며 원래 지대가 낮아 계단식이었으나 사용의 편리를 위해 시멘트를 발랐다고 한다.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아 잡초들이 무성해 다리의 모습을 제대로 뽐내지 못해 안타깝다. 그나마 새마을 사업 때 경계선을 만들긴 했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미금산 온천과



더불어 희심자작교도 창원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

손광섭

광진건설 회장 청주건설비밀관장



희심자작교비